

겁없는 아이들, 브라질 꺾었다

U-17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장재원 골 1-0 승... 조 선두

협력 수비로 브라질 공격 루트 차단... 한달전 패배 완벽 설욕



두 번의 골욕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브라질과 한달여 만에 다시 만난 '리틀 태극전사'들은 약점이었던 조직력을 앞세워 '삼바 축구'를 무너뜨리는 이변을 일으켰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은 18일(이하 한국시간) 칠레 코킵보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최강 브라질을 1-0으로 격파했다. 브라질을 꺾고 승점 3을 따낸 한국은 이날 무승부에 그친 잉글랜드와 기니(이상 1무·승점 1)를 따돌리고 단숨에 B조 선두로 나섰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1무5패로 밀려 있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수원컵에서 브라질에 0-2로 완패했던 터라 승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나선 '리틀 태극전사'들의 머릿속에는 지난달 브라질에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한국은 지난 수원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허술한 수비조직력과 이승우(바르셀로나)에게만 의존하는 공격력 때문에 2실점하며 무너졌다. 당시 패배의 골욕을 가슴에 새긴 '리틀 태극전사'들은 한달여 만에 다시 만난 브라질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브라질의 뛰어난 개인기를 '협력 수비'로 막아내면서 측면 공략으로 수비진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이었다.

최진철 감독의 계획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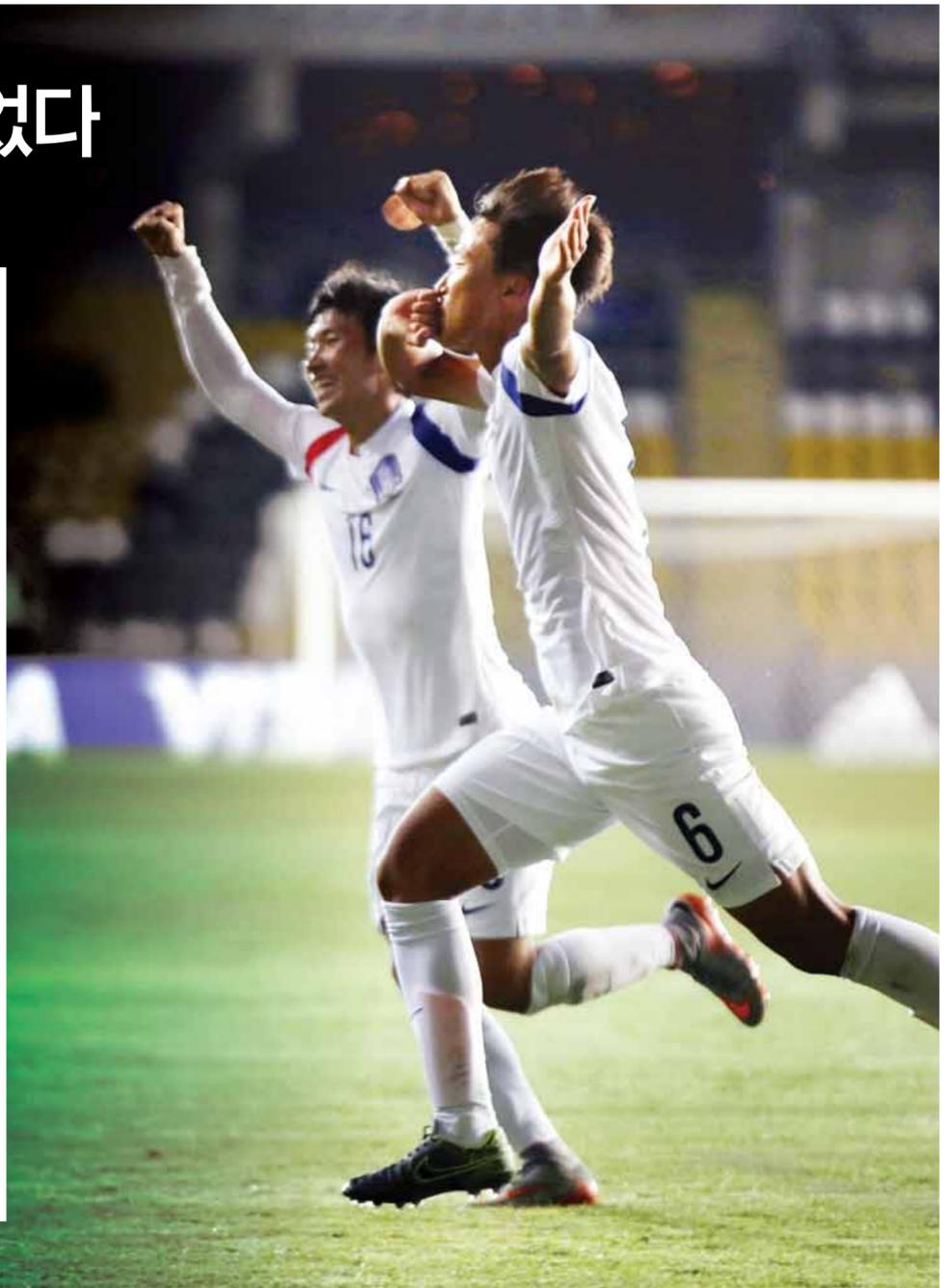
방으로 나선 이승우는 개인플레이 대신 주변 동료로 이용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미드필더들은 중앙 공격에 집중한 브라질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공격 루트를 봉쇄했다. 볼 점유율은 브라질에 다소 뒤졌지만 리틀 태극전사들은 짧은 패스로 브라질의 수비진을 허물어댔다.

최진철 감독의 절묘한 교체 타이밍도 '신의 한수'가 됐다. 한국은 전반전이 끝날 무렵 수비의 핵심인 최재영이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누우면서 위기를 맞았다. 브라질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최재영은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묵묵히 경기를 지켜보던 최 감독은 후반 33분 박상혁(매단고)을 빼고 이상현(현대고)을 투입하는 용병술을 가동했다. 그라운드에 오른 이상현은 후반 34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김진야(대건고)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몸을 돌려 후방으로 기막힌 패스를 내줬다. 순간 페널티 지역을 달려든 장재원(현대고)이 원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았다.

그라운드에 나선지 1분 만에 귀중한 결승골 도움의 주인공이 된 이상현은 후반 39분 브라질의 지오반니 나시멘투 시우바의 퇴장에도 한몫했다. 이상현과 볼을 결합하던 지오반니가 넘어진 이상현을 발로 밟았고, 바로 앞에서 상황을 지켜본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뜰이나 경기가 풀리지 않던 브라질은 지오반니의 퇴장으로 더욱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브라질에 완패하고 난 뒤 "브라질을 만나면 선수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던 최진철 감독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쳐보인 '리틀 태극전사'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한편 이번의 주인공이 된 한국대표팀은 오는 21일 오전 8시 기니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장재원(6번)이 18일(한국시간) 칠레 코킵보의 프란시스코 산체스 루모로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1차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광주 FC, K리그 1부 잔류 '골인'



송승민 골... 부산에 1-0 승

광주 FC가 K리그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지난 17일 부산 아시안경기장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34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하위 스플릿 첫 번째 경기에서 송승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10위 광주는 11위 부산과의 승점 차이를 14점 차로 벌리며 남은 4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클래식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기록 같은 승격소로 K리그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광주는 이번 가을에는 클래식 리그 잔류를 확정지으며 시민구단의 역사가 됐다.

왼쪽 수비수 정호정, 미드필더 여름, 공격수 조용태 등 돌아온 부상병들이 선 발로 나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그리고 '미운 오리'였던 송승민이 결승골을 넣으며 백조로 거듭났다.

최전방으로 투입된 송승민이 전반부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김호남, 조용태와 활발한 스윙플레이를 통해 부산 수비진을 혼돈 그는 전반 34분 날카로운 슈팅을 날리며 승리의 복선을 깔았다. 그리고 전반 42분 이종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절묘하게 올린 침투 패스에 맞춰서 송승민이 문전으로 달려들었다. 송승민은 골키퍼 이범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침착하게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며 부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1골 1도

움을 넣으며 침묵을 깨던 송승민은 2경기 연속 득점과 함께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2골 2도움)를 올리면서 결정적인 순간 주인공이 됐다.

선제골을 얻은 광주는 안정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부산에 단 한 차례의 슈팅도 허락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전반전을 끝냈다. 후반 들어 부산이 점유율을 높여가며 공략에 나섰다. 수문장 최봉진이 든든하게 광주의 골문을 지켰다. 최봉진은 후반 11분에는 부산 김익현의 중거리 슈팅을 막아내며 승점 3점을 지켰다.

후반전 막판 부산의 집중 공세가 전개됐지만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채운 광주 선수들은 경기 종료로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

6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한 광주는 이 승리로 잔류를 확정하면서 내년 시즌에도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게 됐다.

팀의 승격에 이어 잔류까지 지휘한 남기일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었고,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통해 부산 수비진을 혼돈하는 경기를 통해 잔류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경기 역시 오늘처럼 준비를 잘해서 지금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하위 대전 시티즌과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 전남 드래곤즈는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광일리그 8개팀 4강 진출

제한기업 재규어스·페가수스·파트너즈·무등산생태요양병원
타요 바리스타즈·시니어스·금호 허리케인·카뎀진 V-COOL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가을잔치'에 나선 준결승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5주차 경기가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무등중 야구장과 동성고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무등리그 8강 싸움에서 제한기업 재규어스, 페가수스, 파트너즈,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승자가 됐다. 광일리그에서는 타요 바리스타즈, 시니어스, 금호 허리케인, 카뎀진 V-COOL이 준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17일 무등리그 준결승팀이 먼저 가려졌다. 에프나인과 만난 제한기업 재규어스가 2-0으로 앞선 4회 박상진의 투런을 더해 대거 7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 11-1의 볼드승으로 가장 먼저 4강행을 확정했다. 무등기 단골팀 페가수스는 아이프렌즈를 상대로 1회말 5점을 만들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파트너즈도 화려한 화력으로 AWESOME을 14-0, 4회 볼드로 꺾었다. 1회부터 5점을 합작한 타자들이 2·3회에도 각각 4점, 5점을 더하는 등 화려한 공세를 펼치며 4강행을 이끌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MK한방병원을 상대로 9-1, 5회

볼드승을 거뒀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0-1로 뒤진 1회말 2-1 역전에 성공한 뒤, 매 이닝 득점을 올리며 준결승 티켓을 가져갔다.

타요 바리스타즈의 화력도 매서웠다. 18일 진행된 레드제이스와의 광일리그 첫 경기에서 타요 바리스타즈는 1회부터 대거 6점을 뽑아내는 등 12-4, 5회 볼드승을 장식했다. 박주용은 5회 솔로포로 4강 진출을 자축했다. 시니어스는 연희한방병원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 끝에 3-1 승리를 완성했다. 2회 2점을 만든 시니어스가 3회 1점을 보탤 때, 4회 1실점을 했지만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금호 허리케인도 13-2, 5회 볼드승을 기록했다. 금호 허리케인은 2-1로 앞선 3회 조상식의 투런포 등을 더해 7-1까지 점수를 벌이며 일찍 승기를 잡았다. 카뎀진 V-COOL은 뒷선 대결에서 NH자이언츠를 압도했다. 카뎀진 V-COOL은 3회초 수비에서 1-1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3-1을 만들었다. 1점차가 된 5회에도 2점을 보태며 5-2 승리를 신고했다.

한편 아로마라이프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남남도생활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리그(무등중학교 야구장·17일)

◇1경기(4회 볼드)	
제한기업재규어스	2027 - 11
에프나인	0001 - 1
▲승리투수: 홍길준 ▲홈런: 박상진 (4회 2점·세한기업), 조정훈(4회 1점·에프나인)	
◇2경기	
아이프렌즈	1000020 - 3
페가수스	510020X - 8
▲승리투수: 김상호 ▲홈런: 최동훈(4회 2점·페가수스)	
◇3경기(4회 볼드)	
AWESOME	0000 - 0
파트너즈	545X - 14
▲승리투수: 박성호	
◇4경기(5회 볼드)	
MK한방병원	10000 - 1
무등산생태요양병원	24111 - 9
▲승리투수: 김건국	

◆광일리그(동성고등학교 야구장·18일)

◇1경기(5회 볼드)	
레드제이스	21010 - 4
타요바리스타즈	63021 - 12
▲승리투수 : 조환민 ▲홈런: 박주용 (5회 1점·타요바리스타즈)	
◇2경기(6회 시간제한)	
시니어스	021000 - 3
연희한방병원	000100 - 1
▲승리투수: 정재철	
◇3경기(5회 볼드)	
금호허리케인	20542 - 13
패밀리	10100 - 2
▲승리투수: 이정현 ▲홈런: 조상식(3회 2점·금호허리케인)	
◇4경기	
NH자이언츠	0010100 - 2
카뎀진 V-COOL	102020X - 5
▲승리투수: 정기준	